

## 롯데건설 '안전 문화 선포식' 비대면 개최

롯데건설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본사에서 2021년 경영전략 회의와 안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안전 문화 선포식을 비대면으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사장에서는 롯데건설의 올해 경영 계획에 관한 각 본부별 발표와 외부 초청강사의 강연이 진행됐다.

롯데건설은 올해 슬로건을 '조직 전반의 혁신을 통한 지속성장 기반 강화의 해!'로 정했다. 이를 위해 그룹 시너지, 디벨로퍼 역량과 기술력 강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전자적인 원가관리 체계 혁신을 통해 수익성을 강화하며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글로벌 거점시장의 지배력 강화로 해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롯데건설 대표이사

롯데건설은 이날 안전 문화 선포식도 개최하여 안전이 기업경영의 최우선 가치를 밝히고, 안전 문화 생활화 정착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졌다.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는 "회사의 미래를 지탱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고객 신뢰를 강화할 품질 관리와 안전 사고 예방에도 힘쓸 것"을 당부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서초구,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복지부 장관상  
서울 서초구는 지난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인 '서초행복이(e)음센터'가 특화사업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에서 노인맞춤 서비스로 장관상을 받은 것은 서초구가 유일하다. /서초구

## 미래에셋생명, 소아암어린이 위해 기부

FC사랑실천기부금 2560만원  
한국 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



미래에셋생명의 사랑 실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7일 소아암 어린이를 돕기 위한 '2020년 FC사랑실천 기부금' 2560만원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이 기부한 재원은 자사의 대표적 FC 기부활동인 'FC사랑실천 기부'를 통해 모은 금액이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FC들이 보험 신계약 1건당 500원씩 기부하고, 그 금액만큼 회사도 함께 후원했다. 미래에셋생명은 2012년부터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협약을 맺고, 소아암 및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는 어린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매년 기부금을 전달해왔다. 현재까지 기부한 누적 금액은 2억 4000만원을 넘어섰다. /백지연 기자

## 일송 탄생 100주년 기념 '한림체' 배포

학교법인일송학원 서체 무료지원

학교법인일송학원은 11일 '한림체' 서체를 공개하고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한림체는 학교법인일송학원의 설립자인 고(故) 일송 윤덕선 박사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 제작한 학교법인일송학원의 전용서체다.

한림체는 일송의 철학과 신념을 서체에 담고 이를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개발됐다. 일송의 철학은 주춧돌·희

생·봉사이며 함께 녹아든 핵심가치는 한림대의료원의 문화인 도전·응전·따뜻한 울림·신뢰다.

한림체는 총 3가지 굵기(Bold, Medium, Regular)로 제작되었으며 국문 8340자, 영문 282자, KS심볼 2958자 총 1만1580자를 지원한다.

한림체는 한림대학교의료원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한림체 다운로드' 탭에서 개인 및 기업 사용자에게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세경기자 seelle@

## 국방비 잘 생각하자



문형철 7자의

국방 칼럼

풀이 될 수도 있다.

경항모에 탑재되는 F-35B는 공군이 운용할 F-35A에 비해 무장 및 연료 탑재량이 적다. 고작 20대의 F-35B와 명확하지 않은 호위계획, 임무순환 등을 고려하지 않은 1개 함모전단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세된 이벤트함'으로 살다가는 것이다. 태국의 함모 차크리 나루에 베풀어 버릴 말이다.

함모 한척에 2조~4조원, 함재기 구매에 2조원, 거기에 매년 후속 군수지원 등 함모전단 하나에만 운용비가 수조원이 들어간다. 독도 및 한반도 주변 도서를 지키기 위해 함모가 필요하다는 해군이지만, 함재기 20대로 유사시 주변국의 해상 및 항공전력에 대응하기란 쉽지 않다. 20대 중 정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출격가능한 함재기는 14~16기 정도다. 기체손실이 없더라도 지상발전 전투기보다 임무교대가 더딜 수밖에 없다.

F-15K와 F-35A 각각 40기 중 절반씩을 차출하면 40기의 항공전력이 동원가능하다. 10기씩 4교대로 즉각적인 투입이 가능하다. 함재기 10기가 출격하면 6기만 남는 함모에서 어느 세월에 재급유와 재정비를 받고 다시 출격할까.

컨포털 탱크라고 하는 확장연료장치를 단 KF-16 개량사업이 경항모보다

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컨포털 탱크로 탑재 연료량은 약 40%정도 늘어나고, 전투행동반경도 200~300km로 확대시킬 수 있다. 경항모와 비교가 되지 않는 비용으로 더 많은 항공전력을 더 오랫동안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한법상 모든 침략 전쟁을 할 수 없다. 설령 해외파병을 가더라도 전투병 중심이 아닌 시설지원 임무가 주임무인 나라가 왜 항공모함이 필요한지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 막대한 예산이 고정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함모가 도입된다면, 국군은 북한을 비롯한 인접국의 침략 및 재래전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비대칭전력 예산을 날려버릴 가능성도 크다.

해군의 욕심이 타군의 발을 묶어 둘 수 있다. 작지만 강한 군대가 되기위해서 육군과 해병대는 개인화기를 비롯한 기초체력 개선이 먼저다. 개인장비는 '최저가 중국제'가 판을치고, 무기체계는 '국산화'에 묶여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자주국방은 보기 좋은 웅장한 무기체계보다 실질 전투력 지수를 근거로 한 합리적인 자주국방 건설이었다. 노무현 정부를 승계한 문재인 정부의 자주국방이 '라면먹고 사들인 명품'이 되지 않길 바란다.

/captinm@metroseoul.co.kr

## 오렌지희망재단, 결식 우려 아동에 식품 지원

돌봄 사각지대 아동 300명에  
8주간 1.3억 상당 반찬 배송

오렌지라이프의 비영리공익재단 오렌지희망재단이 아동들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오렌지희망재단은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아동 300명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식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역사회 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의 휴관이 이어지고, 겨울방학이 시작되며 급식제공이 중단된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해 마련했다.

매주 1회 총 8주간 주반찬과 밑반찬, 국 등 총 9가지의 반찬을 300명 아이들의 집 앞으로 새벽배송한다.

이성태 오렌지희망재단 사무국장은



오렌지희망재단이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아동 300명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식품을 지원한다. 이성태 오렌지라이프 전무(오렌지희망재단 사무국장, 가운데)가 관계자들과 포즈를 취했다. /오렌지라이프

"코로나19 장기화와 방학으로 인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들의 결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오렌지라이프와 오렌지희망재단은 우리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지원하

여 단순히 배고픔을 채워주는 활동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widus0248@metroseoul.co.kr

###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강원지청장 김한궁

◆군산시 ◇사무관(지방 5급)△회계과 장영호△열린민원과 정대현△정보통신과 김덕일 △산업혁신과 백일성 △안전총괄과 서정석△경로장애인과 이건실 △수산진흥과 박동래 △도시계획과 윤석열 △하수와 백운초 ◇주사(지방 6급)△공보담당관 박소연△감사담당관 전호영△에너지담당관 김형상 △행정지원과 전수강 △행정지원과 정기명 △회계과 고현숙 △회계과 김연광 △열린민원과 두진아 △교육지원과 권은단

△교육지원과 김인옥 △산업혁신과 강혜정 △산업혁신과 정미희 △아동청소년과 김윤숙 △안전총괄과 조일상 △의회사무국 조남호 △세무과 곽형곤 △시민납세과 고영범 △시민납세과 김진숙 △경로장애인과 강영란 △체육진흥과 송미재 △수도과 김영진 △에너지담당관 한정욱 △안전총괄과 유호주 △수산진흥과 지용삼 △건강관리과 강혜린 △보건의사업과 박선아 △도시재생과 고승민 △안전총괄과 장재석 △건설과 황주선 △수도과 권종득 △하수와 전석 △주택행정과 최영귀 △여성가족과 이학고 △자원순환과 이영운 △시립도서관관리과 박종성 △도시재생과 윤인애 △기술보급과

안우철

### 부음

▲남궁영구씨 별세, 남궁진(충북남부보훈지청 선양담당)씨·남궁형진(뉴스1 세종·충북본부 기자)씨 부친상, 서희철(충북 청주 상당경찰서 수사과)씨 장인상 = 10일 오전 0시, 충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1실, 발인 12일 오전 9시. 043-269-6969  
▲김은영씨 별세, 김진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씨 모친상 = 10일 오전, 고대안암병원 장례식장 101호, 발인 12일 오전 9시. 02-927-4404